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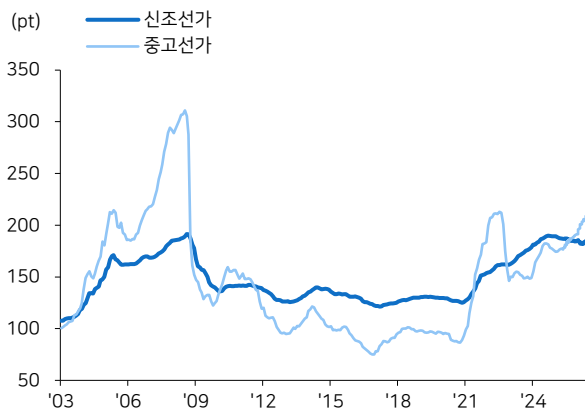


2026. 5. 22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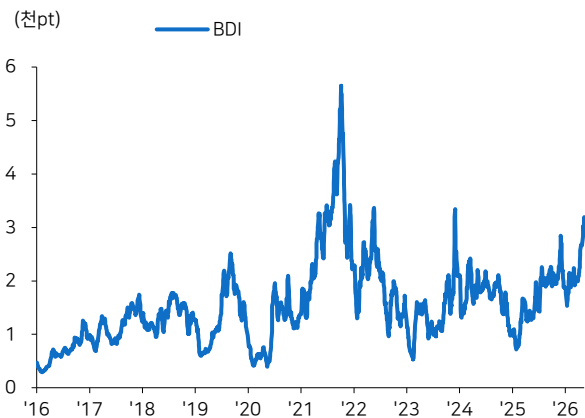
신조선가 184.6p (+0.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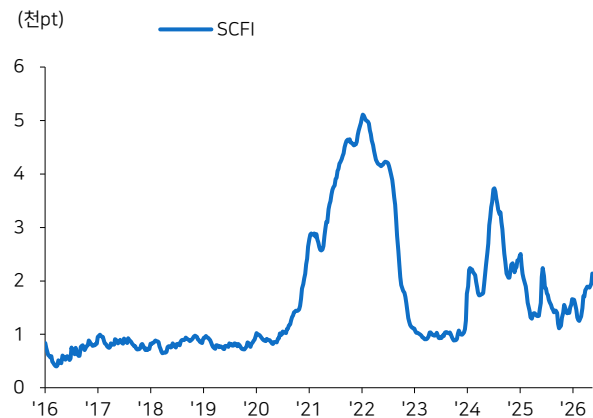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7.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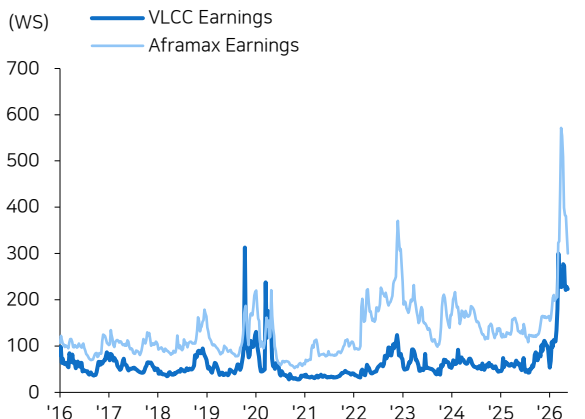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005.0p (-49.0p 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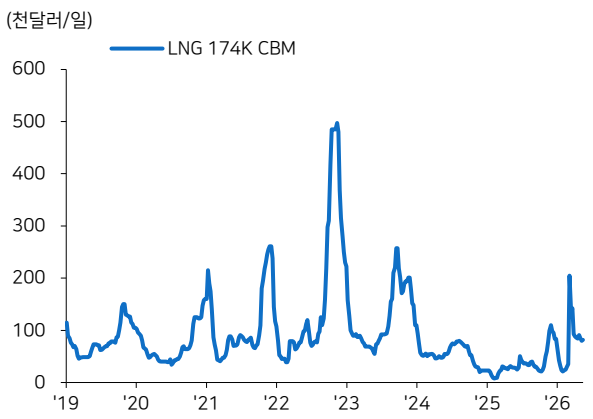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140.7(186.5 WoW)



VLCC Spot Rate 223.0WS (-4.7p WoW)



LNG Spot 운임 82.0천달러 (+2.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D 현대중공업 손 들어준 대법...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 (MBN)

<https://zrr.kr/dQaMbu>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하청노조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청의 교섭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보도됨. 재판부 다수의견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안의 경우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삼는 기존 판례 법리가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적극적인 단체교섭 의무 부담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전해짐. 이번 판결은 하청노조가 실질적 지배력을 이유로 2017년 소송을 낸 지 7년여 만에 나온 결론으로 1·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으나, 올해 3월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 지배·결정권자로 확대한 노란봉투법이 이미 시행된 상황이라서 향후 산업계 현장의 원·하청 간 교섭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고 알려짐.

차세대 원전기술 상업화, 韓美 대표기업 손잡았다 (아시아경제)

<https://zrr.kr/LqLrm6>

현대건설과 HD현대중공업이 미국 원자력 기업 TerraPower와 차세대 원자로 '나트륨'의 상업 배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세 회사는 TerraPower가 미국 와이오밍주에 건설 중인 345MW 규모의 소듐냉각고속로(SFR) 기반 원전 사업과 글로벌 추가 시장 확대를 위해 협력하며, HD현대중공업은 원자로 용기 제작을 비롯한 공급망 확장에 나서고 현대건설은 대형 원전 및 SMR 분야의 EPC 역량을 바탕으로 후속 상업호기 시공 참여를 협의한다고 전해짐. 이번 협약은 한국 기업의 첨단 기술과 제조 역량을 결합해 4세대 원자로 프로젝트의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알려짐.

韓, 캐나다서 60조 잠수함 수주 막판 총력전 (매일경제)

<https://zrr.kr/molRwb>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CPSP) 사업 최종 선정을 한 달 앞두고, 한국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회 'CANSEC 2026'을 기점으로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고 보도됨. 한화오션은 전시회에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3,600t급 '장보고-III 배치-II' 모형을 선보이며, HD현대중공업은 주원호 사장이 현지 국방·방산 고위 관계자 및 의원들과 미팅을 갖는다고 전해짐.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해 에너지 공급망 협력과 방산 외교를 지원하는 한편, 한화그룹의 현지 기업 파트너십 구축과 HD현대그룹의 캐나다산 원유 직수입 계획 등 전방위적 산업 협력 패키지를 통해 독일 TKMS를 맹추격하고 있다고 알려짐.

"함정사업 패권 달렸다" HD 현대중·한화오션, KDDX 2차전 돌입 (이데일리)

<https://zrr.kr/MiaHZy>

7조 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둘러싸고, 한화오션 단독 응찰로 유찰되었던 1차 입찰에 이어 방위사업청이 5월 29일 제안서 마감인 2차 재입찰 절차에 돌입했다고 보도됨. 이번 2차 입찰에는 기본설계를 수행했던 HD현대중공업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한화오션과의 경쟁 체제가 예고되었으며, 수주 결과는 6척의 미니 이지스함 확보를 넘어 향후 후속함 사업과 글로벌 함정 수출 시장의 핵심 레퍼런스로 직결되어 양사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짐. 과거 개념설계 자료 유출에 따른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리스크와 기본설계 공유 관련 법적 공방(가처분 기각 및 항고)이 핵심 변수로 남아있는 가운데, 이번 수주전은 이르면 7월 최종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국내 해양방산 및 함정 산업 경쟁 구도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고 알려짐.

Ciner cements gas carrier debut with order for six VLACs topping \$700m (TradeWinds)

<https://zrr.kr/zVXSzf>

터키 Ciner Shipping이 가스운반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HD현대상호와 체결했던 VLAC 건조를 위한 구매의향서(LoI)를 본계약으로 전환했다고 보도됨. Ciner Shipping은 지난 4월에 합의했던 90,000cbm급 선박 4척에 2척을 추가해 총 6척의 dual-fuel VLAC를 HD한국 조선해양 산하의 HD현대상호에 발주했으며, 총 계약 규모는 약 1조 782억 원(척당 약 1억 1,950만 달러)으로 선박들은 촉발전기와 2층 탱크를 탑재해 2029년 하반기까지 순차 인도될 예정으로 전해짐. 미국산 LPG 및 암모니아의 극동 아시아 수출 노선에 유연하게 투입 가능한 이번 신조 발주를 계기로 Ciner Shipping은 향후 중형 가스선 추가 발주 등 가스선대 다변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려짐.

QatarEnergy teams with Egypt and ExxonMobil on gas and LNG exports (TradeWinds)

<https://zrr.kr/84RWuH>

QatarEnergy가 이집트 정부 및 미국 ExxonMobil과 MOU를 체결하고, 이집트의 기존 가스 및 LNG 인프라를 활용해 키프로스 해역의 천연가스 매장지를 상업화하는 방안을 공동 연구한다고 보도됨. 이번 협약은 ExxonMobil과 QatarEnergy가 보유한 키프로스 광구의 가스 발견물을 이집트 액화 기지로 수송·액화해 글로벌 시장으로 재수출하기 위한 조치로 전해짐.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LNG 생산 및 수출 차질을 겪고 있는 QatarEnergy는 이번 협력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한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